

실질적인 비용 데이터 손실의

ABC, INC.의 설계자들은 제품 업데이트에 재사용하고자 이전 파일을 찾습니다.

85%



신제품 설계의 85%는 이전 제품의 지적재산권으로 이루어집니다.¹

30%



전체 검색 결과, 파일의 30%가 분실되었습니다.

47%



기업의 47%가 클라우드 데이터 손실을 경험하여 백업에서 정보를 복원해야 합니다.²

데이터 손실의 일반적 원인:



40%

하드웨어 고장 (전력 급증)



30%

인적 실수(실수로 삭제하거나 노트북을 떨어뜨리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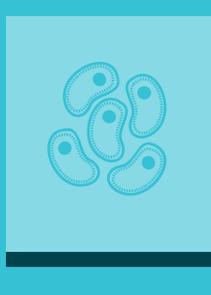
13%

소프트웨어 손상



9%

하드웨어 도난



6%

컴퓨터 바이러스



2%

하드웨어 파손 (홍수, 낙뢰, 화재)

ABC 설계자 중 하나가 실수로 서버의 파일을 삭제했습니다.

40%

중소기업의 40%가 데이터를 백업하지 않으며 백업하는 경우에도 백업의 40~50%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습니다.³



1MB 데이터 손실 = 10,000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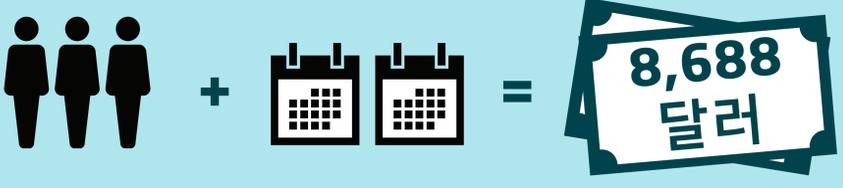
손실 데이터 복구에 드는 시간은 평균 약 6시간입니다.⁴ 조직의 복구 작업 중 16%는 실패합니다.⁵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없다면 해당 데이터는 손실되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1MB의 가치는 10,000 달러로 추정됩니다.

ABC에서는 손실 데이터를 복구하지 못해 처음부터 파일을 재생성해야 했습니다.



중복된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ABC 설계 팀은 다른 프로젝트를 처리할 수 없어 전체 생산성이 하락합니다.



ABC 직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은 시간당 평균 36.20 달러입니다. 설계자 3명이 중복된 작업을 처리하는 데 2주를 소요하여 ABC에 8,688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데이터 손실로 인해 ABC의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3주 지연됩니다.

매출 50% 손실

설계 팀이 밤낮 없이 시간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 근무합니다.

업데이트된 제품의 출시가 지연되어 ABC에서는 그 달의 예상 매출 중 50%가 손실되었습니다.



1%

일반 기업에서는 데이터 손실로 인해 연 매출의 1%를 잃고 있습니다.⁶

\$

일반적인 조직에서는 데이터 손실로 인해 연간 585,892 달러의 비용이 발생하며 가동 중단으로 497,037.7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⁷



데이터 관리 솔루션에 투자할 경우 ABC는 노동 시간 21일 + 8,000 달러 + 매출 손실로 인한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2/3 이상이 데이터 관리 서비스 투자로 향후 1년 간 5% 이상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⁸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기업들의 현황:



30%

PDM 또는 PLM 솔루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음



25%

비생산적인 데이터 관리 작업에 사용하는 시간이 적음⁹



2.7배

필요한 데이터를 "매우 효과적으로" 찾을 가능성이 높음



3배

데이터 관리 작업을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높음



3배

설계 프로젝트를 "매우 효과적으로" 관리할 가능성이 큼

ABC, INC.처럼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하세요.

우수 기업들은 중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데이터 관리에 투자합니다.

참조 1. Marvin L. Patterson, "Accelerating Innovation" 2. Symantec 3. IDC 4. Pepperdine University 5. Kroll Ontrack study 6. KLogix 7. EMC 8. Forrester 9. Siemens/Tech-Clarity